

“하늘전쟁”

■ 이종윤 원로목사

요한계시록 12장에는 미가엘 군대와 사탄의 군대가 하늘에서 전쟁을 한다고 했다. 그 하늘전쟁은 사탄이 하늘에서 쫓겨나는 원초전인지, 아니면 세상 끝에 일어날 종말전인가 하는 질문을 하게 한다. 전자나 후자가 아니라면 언제 일어날 전쟁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단서는 계시록 12:11에 있다. 여러 형제들이 사탄을 “어린 양의 피로 이겼다”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과거 어느 시점에서 사탄을 이겼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그 결과로 사탄을 이긴 것이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언제 사탄을 이기셨는가? 그리스도께서 피로 이긴 사건은 십자가 사건이다. 구속사의 과정에서 사탄에 대한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통해서였다. 승리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인데 그 피에 근거한 사탄과의 싸움에 미가엘이 그리스도의 대행자로 등장한 것뿐이다. 미가엘은 이스라엘의 수호천사로서, 사탄의 악한 세력에 대항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는 천사다. 계시록은 3년 반 동안 사탄은 하늘에서 땅으로 쫓겨났다고 한다. 이는 그리스도의 승천부터 재림까지의 기간이므로 이 하늘전쟁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사탄과 싸워 일어난 전쟁이라 할 수 있다.

언제, 어디서 일어나는 전쟁인가?

하늘전쟁의 실패로 ‘큰 용’ ‘옛 뱀’ ‘마귀’ ‘사탄’이 그 부하들과 함께 땅으로 쫓겨나서 욕,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참소하듯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한다. 사탄은 유다를 유혹했고, 베드로를 배신자로 만들었으며, 박해와 유혹을 무기 삼아 사람들을 파멸로 이끈다. 사탄은 ‘공중 권세 잡은 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로 ‘하늘에서 번개처럼 떨어졌다.’(눅 10:18) ‘공중 권세 잡은 자’란 하늘에서 쫓겨났다 다시 올라갔다는 뜻이 아니고, 장소적인 개념보다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쫓겨난 사탄의 참소를 더 이상 듣지 않으시고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롬 8:1) 하셨다.

마귀는 전체가 거짓

하나님이 친히 부리시는 미가엘이 땅으로 쫓겨난 마귀 붉은 용과 싸운다. 인류 시조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여 범죄케 하고 그들을 죽게 했으므로, 피를 흘리는 자 즉 처음부터 살인자다. 피를 흘리는 자라는 의미에서 붉은 용이라 하고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바라 했다. 그러나 택한 백성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 모든 거짓은 마귀에게서 난다. 마귀 자체가 거짓이라는 성분으로 되어 있다. 하나님께서는 마귀도 선하게 지으셨지만, 하나님을 반역했으니 진리 전체를 반역한 것이다. 따라서 마귀는 전체가 다 거짓이다. 다른 천사들까지도 그 꼬리로 꼬여 타락시켜 군대를 만들었다.

진리와 비진리의 영적싸움

세상적 무기를 갖고 싸우는 것이 아니고, 영적전쟁은 언쟁을 하는 사상전을 뜻한다. 그러나 마귀는 그 속이는 세계가 진리의 말씀 앞에 다 드러나기 때문에 오래가지 못한다. 비진리의 참상과 거짓의 흑암은 빛 앞에서 드러난다. 그러나 마귀는 자신이 거짓된 것을 주장하는 줄 알면서도 고집을 부리고 반역을 한다. 그러니 오래 견디지 못한다.

사탄은 여인(교회)을 공격하나 신앙고백과 기도의 무기로 대적하라

용을 하나님께 고소했으나, 마귀는 패배했고 진리가 승리했다. “귀신들은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믿고 떠느니라” 했다.(약 2:19) 하나님이 누구이심을 말할 때 귀신 마귀는 떨고 물러간다. 성도들이 신앙고백을 진실하게 하면 마귀는 쫓겨간다.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유 1:9)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를 놓고 마귀와 변론할 때 주님께 기도함으로 마귀를 물리치셨다. 진실한 기도와 신앙고백이 영적전쟁의 참되고 힘 있는 무기다. 산이 무너지고 땅이 흔들려도 진실을 잃어버리지 않을 때 마귀는 꾀박 못하고 쫓겨 간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이시고 우리를 대속하시려고 거짓된 사탄과 싸워 “내가 이기었노라” 하셨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도 승리하는 성도(교회)가 되자.

-한국장로신문 [제 1581호] 2018년 1월 27일 발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주일 제직회에서 손달익 목사님을 서울교회 3대 담임목사로 청빙하기로 결의하였고, 오늘 부임인사를 하시게 됩니다. 또한 오후 찬양예배 이후 중직선거를 위한 공동의회가 열립니다. 공동의회 회원들께서는 오후 4시10분부터 본당 2층 로비에서 회원자격확인과 함께 투표지와 기표용 펜을 미리 수령한 후 찬양예배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서울교회를 이토록 아름답게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오늘 대면하여 예배드리기를 소원합니다.

교회당에 방역대책이 안전하게 세워져 있으므로 안심하고 예배에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특별히 어려운 상황이 아닌 한 예배당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시면 좋겠습니다.

※ 주일 1,2,3부 예배, 오후 찬양예배, 수요 1부 예배를 본당에서, 수요 2부 예배는 웨민홀에서 드립니다.

본당 2,3,4층에 입장하신 후에는 반드시 ‘예배석’ 표시가 부착된 좌석에만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새벽기도회와 타 교육부서 예배는 비대면 온라인 영상으로 드립니다.

※ 방역, 교인확인 및 지하주차장 이용 안내

기준과 같이 1층 현관 앞 또는 지하주차장 주차 시 지하1층에서 발열체크 후 교인확인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사정상 교인증이 준비되지 못하신 분들은 수기대장 작성 후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 실시간 영상예배 접속방법은 이전과 같습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ziHchZPo8YwmR9UYpoXJrA>

주일예배순서도 함께 보내드립니다.

* 예배 순서 및 영상예배 지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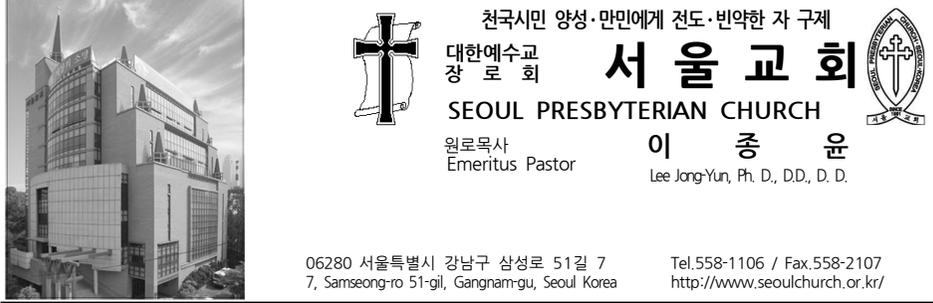
http://www.seoulchurch.or.kr/upload/20210523_sermon.jpg

서울교회 당회 드림

우리의 비전 (vision)	① 세계 복음화(Evangelization of the whole world) ② 교회 천국화(Kingdomization of the whole church) ③ 문화 기독교화(Christianization of the whole culture)	서울교회QR코드 

부 목 사 서명철 장석남 조원영

전도사 박미라 안용근 **준전임전도사** 강남희 **교육전도사** 허은 양하림 이대원 정기성 김예지 **협동목사** 김의창 심우진 **전재홍 선교 사** 전광혜(서아시아), 이은준·강해경, 양재성·이현주(카자흐스탄), 이경엽, 조남혜(방글라데시), 조병연·김희경, 우상식·김정욱(인도), 서광중·이성일(인도네시아), 김용진·황경혜(말리우), 김영호·서향정(러시아), 허창범·함미소(일본), 김남혁·오정녀(캐나), 김종일·백순미(외국인 노동자), 박명성(총회), / 이삭, 비스타파, 사지, 예복(인도), 스프로토바로이, 필리몬, 프로산도, 수세시, 수바스, 알로롱, 비시누브도, 보디소도, 린룸, 수란존(방글라데시) / 김태식, 윤왕모, 이금순, 김영일(군선교) / 정상진·홍성임(팔라우), 이재용·박병진(캄보디아), 이재훈·박재연(마다가스카르)



“ 세상을 여는 통로 ”

■ 엡 6:1-4

하나님이 주신 심계명 중 위로 하나님을 섬기는 첫 돌판을 제외하고 두 번째 돌판에 해당하는 인간 사랑에 대한 첫 계명에서 부모 공경을 가장 먼저 언급하고 있는 것은 나를 세상에 진압하게 하고 살아가는데 필요한 몸과 마음을 준비시켜 주는 최고의 스승이기에 그렇습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신 5:16).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 계명을 이렇게 풀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엡 6:1-3).

1. 하나님의 명령: 순종과 공경

부모와 관련하여 자녀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은 심계명에서는 공경이며 오늘 본문에서는 순종이 첨가되어 있습니다. 부모를 순종하라는 것과 아버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는 것은 선택적 의무사항이 아니라 인간이라면 반드시 수행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덕목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굳이 이 명령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간의 죄성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임을 강조하고자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순종과 공경, 어떻게 해야 합니까? 순종은 주 안에서 하는 일이며 공경은 주님 안에 있든 밖에 있는 모든 인간사에 요구되는 덕목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부모는 혈통적 관계나 마음으로 얽여져 있는 부모 모두를 포함합니다. 더욱이 칼빈이 나 17세기 청교도들은 주변의 어른들, 높은 관직에 있는 자들, 우리를 인도하고 가르치는 목사와 선생들까지 다 포함시켰습니다. 부모는 아이에게 세상을 여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아이들은 부모를 통해서 순종이 무엇인지, 무엇이 어미와 아버를 공경하는 것인지, 어른들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가르침 받아야 합니다. 이런 가르침이 없다면 안하무인적의 인간이 되고 맙니다.

그렇다면 순종하며 공경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첫째, 어머니 아버지의 말씀을 잘 귀담아듣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사실 공경이라는 말 자체가 존중한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어서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는 공경이 성립될 수 없듯이 부모의 존재와 가르침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없는 순종과 공경은 가짜입니다. 여기서 기억할 것은 순종은 성인이 되지 않은 어린아이들이 습득해야 할 덕목이며 공경은 성인 자신들이 실천해야 할 덕목이라는 점입니다.

둘째로 공경한다는 것은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잘 키웠다고 호탕하게 여기시게 하는 부모가 되게 힘이 자녀들이 부모를 잘 공경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히 11:16)고 하신 말씀과 같이 ‘내가 네 어머니 아버지 것이 자랑스럽구나’라고 말할 수 있게 해 드리는 것이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경은 섬김과 뉘 수 없는 단어입니다.

2. 하나님의 약속: 잘 될과 장수

하나님은 명령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약속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순종과 공경을 잘하는 자들에게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신명기 5:16절 말씀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땅에서 잘 된다는 것은 부자가 된대거나 권력자가 된대거나 출세를 보장한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 부족함이 없게 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다!’라고 즐거이 노래하게 하는 것입니다. 있는 것으로 족한 줄 아는 복,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복,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덕을 세우고 은혜를 끼치는 복, 도움이 필요로 하는 자에게 도움의 손길이 되어줄 수 있는 복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하나님께서 순종과 공경하라는 명령을 주신 것은 약속하신 복을 주시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젓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은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것 때문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잘 섬기는 자들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땅에서도 잘 되고 하늘에서도 받을 상급이 많은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육신의 생명은 끝났어도 그들이 남겨놓은 영적 유산들이 여전히 살아서 말하고 있습니다.

맺는 말

부모는 한 생명이 살아갈 세상의 통로입니다. 이 멋지고 아름다운 세상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신 부모님께 평생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을 듣는 부모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땅에서도 기쁨진 복을 누리 뿐 아니라 죽었으나 여전히 살아서 말하는 장수의 복도 만끽하는 순종과 공경의 본을 보이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주 서정원 목사 설교요약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 4:24)

주일예배

Sunday Worship Service

시 간	인 도	기 도
Time	Presider	Prayer
I 오전 9시	전재홍 목사	오광환 장로
II 오전 11시 20분	조원영 목사	오치열 장로
III 오후 2시	장석남 목사	장석남 목사

입례송 Prelude 오르가니스트
 예배예의 부름 Call to Worship행 1:8... 인 도 자
 기 원 Invocation 인 도 자
 * 찬 송 Hymn6(8)... 다 함 께
 * 신앙고백 Apostles' Creed 다 함 께
 * 성서교독 Responsive Reading ...136(성령강림 2)... 다 함 께
 * 송 영 Doxology 1(1) ... 다 함 께
 기 도 Prayer 말 은 이
 찬 송 Hymn183(172)... 다 함 께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딤후 3:14-17... 인 도 자
 성도의 교제 Member's Fellowship 다 함 께
 봉헌 Offering 다 함 께
 * 봉헌송 Offering Hymn634(70)... 다 함 께
 * 봉헌기도 Offering Prayer 인 도 자
 찬 양 Anthem 찬 양 대
 새가족 환영 Welcome to Newcomers 다 함 께
 설 교 Sermon“성경으로 돌아가자!”... 서정원 목사
 * 찬 송 Hymn201(240)... 다 함 께
 * 축 도 Benediction 설 교 자
 * 주기도송 Lord's Prayer Song 다 함 께

* 표는 회중 모두 일어서는 표입니다. ()는 통일찬송가입니다.

찬양예배

오후 5시 ·인도: 서명철 목사, 설교: 손달익 목사

목 도 다 함 께
 성 시 계 2:10 인 도 자
 찬 송 211(346) 다 함 께
 기 도 황병석 집사
 성 경 레 2:1-2 인 도 자
 찬 양 찬 양 대
 설 교 ... “향기로운 섬김” ... 설 교 자
 * 찬 송 459(514) 다 함 께
 * 축 도 인 도 자
 * 주기도송 다 함 께

수요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인도, 설교: 조원영 목사

기 도 I부: 허현숙 권사 II부: 백미혜 권사
 성 경 삼하 14:1-24 인 도 자
 찬 양 찬 양 대
 설 교 ...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랴” ... 설 교 자

새벽기도회(인터넷 영상)

오전 5시30분

피아니스트: 홍혜란·김양연·박수강·김복화2

설 교 장석남 목사

예배 및 집회시간 안내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본당
	II 부 예 배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 11시 20분	웨스트민스터 홀
수 요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11시	본당
	II 부 예 배	오후 7시	웨스트민스터 홀
새 벽 기 도 회		오전 5시 30분(월 - 토)	웨스트민스터 홀

교회소식

☛ 모 임

1. 공동의회 / 안건 - 제15대 안수집사, 제14대 권사 선출 일시 - 오늘 23일(주) 찬양예배 후 본당

☛ 알 림

1. 101호 예배

초등부 예배 :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 청년부 예배 : 오후 2시

2. 102호 예배

사랑부 예배 : 주일 오전 10시20분-11시

3. 403호 예배

영아부 : 주일 오전 9시-오후 6시

4. 501호 예배 및 부서 모임

중고등부 예배 : 주일 오전 9시-10시

5. 601호 부서 모임

청년2부 모임 : 주일 오후 3시30분-5시

6. 602호 부서 모임

새가족부 : 주일 오전 10시20분

7. 603호 부서 모임

소망부 : 주일 오후 12시40분 / 청년1부 모임 : 주일 오후 3시30분-5시

8. 609호 부서 모임

청년2부 모임 : 주일 오후 3시30분-5시

9. 701호 예배

유년부 예배 :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10. 702호 예배

유아, 유치부 예배 :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서울교회 새가족으로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1. 온라인으로 한글하시는 분들에게 교회 명의로 신규계좌가 개설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신한은행 100-034-868968(대한예장 서울교회)

*예전 사용하던 계좌는 2020년 12월31일부로 종료되었습니다.

12. 이번주 심방 일정

9-2, 13-12, 16-3~4다락방

지난주 출석현황(인터넷 영상예배 포함)

주일1,2,3부	찬양예배	주일예배 합계	수요예배	새벽기도
1,321명	682명	2,003명	495명	1,239명

🌳 온유한 자

적자생존, 약육강식의 생존경쟁이 치열한 현실 속에서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가르치신 예수님의 교훈은 시대성이 없는 말씀같이 보일지 모른다. 그러나 이 말씀은 영원불변한 진리다.

온유한 자란 중용지도를 택하거나 부드럽고 양보 잘하는 성격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주님이 가르친 온유는 자신의 이익과 흥미보다 다른 사람의 것을 보도록 노력하게끔 조정된 자이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 더불어 땅을 나눌 때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 함으로 그의 온유함을 나타냈다. 하나님의 종 모세를 대적한 미리암에게 하나님께서 문둥병으로 진노를 내리셨을 때 모세는 오히려 하나님께 미리암의 치병을 위한 기도를 드림으로 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는 칭찬을 받았다.

온유한 자는 천국을 기업으로 받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된다.

-이종운 원로목사 신앙칼럼 '순례자'에서-

청 결 유 지

거룩한 하나님의 집을 청결하게 유지하기 위해 합심시다.

에너지 절 약

불필요하게 전기를 켜놓은 복도와 화장실 전등을 끄시다. 방을 사용한 후 나올 때 반드시 전기(전등, 플러그, 마이크 등)를 끄고 나옵시다.

주 일 성 수

주일은 예배와 전도하는 날입니다. 가급적 회의를 줄이시고 예배와 전도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